

삶과 배움이 연계되는 동아시아시민교육

21세기 동아시아의 미소



주

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Incheon Bukbu Office of Education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기

간

2021. 04. 06.(화) ~ 04. 18.(일) 10시~18시(월요일 휴관)

장

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참여학교

인천갈산초등학교, 인천부곡초등학교, 인천산곡남초등학교,
인천상정중학교, 구산중학교

담론에서 실천으로

문화예술로 동아시아시민교육 가치 확산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경



중등교육과 이종태 과장

동아시아시민교육은 평화·공존·번영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교육이자 미래교육입니다. 이러한 동아시아시민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인재가 될 것이기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년에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 전면화를 역점정책으로 추진합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은 ‘삶과 배움이 연계되는 동아시아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지난 해부터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목소리와 발자국이 담긴 동아시아시민교육의 실천적 지식을 이번 전시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은 「21세기 동아시아의 미소」 전시는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육공동체에 많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을 꿈꾸는 인천 교육공동체의 널리 퍼져나가 삶의 힘을 기르는 교육생태계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시민교육을 통해 ‘삶과 배움이 연계되는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부평구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를 포함한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동아시아의 미소」는 ‘평화·공존·번영’ 등을 주제로 한 사회참여미술 작품과 그 작품을 기반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체험한 결과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부교육지원청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문화예술 기반 동아시아시민교육의 결과물이자, ‘평화·공존·번영’의 동아시아를 꿈꾸는 2021년 북부교육지원청의 또 하나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예술을 통해 무한한 상상을 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 학생들이 동아시아시민으로서 공동체성을 힘양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자라나는데 이번 전시가 작은 밑거름이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이 밑거름이 동아시아시민교육 확산에 큰 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동아시아를 사유하는 21세기의 염화미소¹⁾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김준기

임영선은 동아시아 변방의 아이들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미래를 본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주변부의 소수자에 주목해서 그곳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지구화의 이면에서 떠오르는 지역화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동아시아담론이나 중화폐권주의의 급부상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거대담론의 틀에 포섭된 2021년을 살아가면서 동시대의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게 해 준다. 동아시아를 두루 뛰는 임영선의 행보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겠다’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예술가적 상상력으로 풀어내는 일이다. 그는 몽골이나 캄보디아, 티벳 등과 같은 지역의 변방마을을 방문해서 예술적 실천을 하고 있는데, 방문 현장의 어린이들과 벽화 그리기 등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가지는 한편, 한 없이 맑고 깊은 미소를 보내는 어린이들을 현지의 풍경과 오버랩해서 담아내는 회화작품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관찰자 시점의 방문객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지의 상황과 함께 호흡하는 일련의 체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생산한다.

다수의 예술가들이 국제교류의 장에 동참하기를 갈망하면서 국제적인 명망성을 갖춘 미술관이나 갤러리 공간에서 작품을 발표하는 데에 골몰한다. 반면에 임영선은 동아시아 변방의 가난한 마을을 직접 찾아가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과 벽화 그리기 등의 예술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뭇 다르다. 애초에 그가 봉사활동에

1) 이 글은 임영선 작가의 임영선의 ‘On the Earth: Cambodia_Tibet’ 전시에 대한 미술평론가 김준기의 비평문을 재구성한 것이다.



참여했던 인연으로 동아시아 어린이들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그러기에 임영선의 행보에는 자원봉사자와 예술가라는 두 가지 정체성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임영선은 예술작품 생산을 위해서 동아시아의 어린이들을 만나온 게 아니라 그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자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어린이들을 캔버스에 옮겨 그리고 있는 지금까지도 임영선은 그들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람이다.

임영선은 낭만주의자다. 그는 1980년대 학생시절에 통일과 민주주의의 쟁취를 갈망하는 학생운동을 하였다. 20대 청춘 시절의 사상과 정서가 그의 마음 속 저변에 자리잡고 있기에 지금의 그의 행보를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작가는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깊고 넓게 한반도의 정세에 관해 생각하는 예술가이다. 그러한 그가 한반도의 두 국가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동아시아의 어린이들을 화면에 담는다는 점은 한반도의 문제를 남한과 북한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좁은 틀에 국한하지 않고 동아시아 공동의 미래 속에서 성찰하겠다는 것이다.

임영선은 동아시아담론을 자신의 예술적 어법으로 의제화하는데 성공했다. 유사 이래 19세기까지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중심이 정치와 경제, 문화의 영역에서 해제모니를 갖고 있었는데 20세기의 역사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거대한 힘의 상실은 새로운 양상의 전쟁과 경쟁을 낳았고, 오늘날까지도 상호간의 적대적 태도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냉전 시대를 지나면서 미국중심의 일극 패권주의에 빠져 동아시아를 공동체나 지역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연대하는 일에 눈뜨지 못했다. 그나마 1980년대 후반 이후 동아시아담론이 대두한 탓에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그것은 담론의 수준을 넘어 실행 모드로 이행하기에는 상당히 피상적인 것이었다. 물론 정치적인 변화와 경제적인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문화적 상호교류는 이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해 있다. 하지만 예술적 상상력에 입각한 국가와 국가, 도시와 도시, 나아가 개인과 개인의 상호성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그렇게 때문에 작고 낮은 목소리로 동아시아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임영선의 예술은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답다. 임영선은 예술가적 양심에 따라 실천하는 ‘행동하는 예술가’이다. 그의 예술적 실천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의 동아시아교류는 국가 간의 교류가 아니라 민간의 차원, 특히 임영선이라는 예술가 주체의 실천의지에 입각해 있다. 흔히들 예술가들의 해외활동을 국제교류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국제적(International)이라는 말은 국가 간의 상호성을 의미한다. 그 상호성이라는 것이 국가 간의 엄연한 경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예술적 실천이나 소통의 문제와는 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임영선의 행보는 국가 정체성을 대변하거나 대표하지는 않는다. 그는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활동하는 한 예술가로서 움직일 뿐이다. 물론 그를 규정하는 국가나 도시, 성별, 연령 등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임영선은 시대정신과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예술적 실천을 모색하는 한 개인으로서의 예술가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

임영선의 회화에는 시대정신을 훠뚫는 염화미소(拈華微笑)가 깃들어 있다. 꽃을 집어든 석가에게 미소로 화답한 그의 제자 가섭의 이심전심(以心傳心)과 같이, 임영선의 그림에는 직관적 소통을 매개하는 힘이 있다. 임영선 회화의 가장 큰 특질은 봇질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살아 매력을 발산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사진을 바라볼 때와는 전혀 다른 회화 이미지의 매력이다. 가령, 동아시아 어린이를 찍은 사진을 보는 관객이 ‘저기에 어린이(이미지)가 있다’라는 인지를 가질 확률에 비해서 임영선의 그림을 보는 관객이 ‘저기에(어린이를 그린)그림이 있다’라는 인지에 도달한 가능성이 훨씬 높다. 어린이와 어린이를 찍은 사진 이미지 사이의 간극에 비해서 어린이와 어린이를 그린 회화 이미지 사이의 간극이 훨씬 커 보인다. 따라서 임영선의 회화는 회화적 표현 대상인 어린이들에 대해 성찰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 자신을 의식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 깊고 넓은 세계를 꿈꾸어 보게 해준다는 것이다. 화려한 봇질과 빛나는 색채의 임영선 회화에는 직관의 힘으로 시대정신을 성찰하게 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동아시아를 사유하는 21세기의 염화미소가 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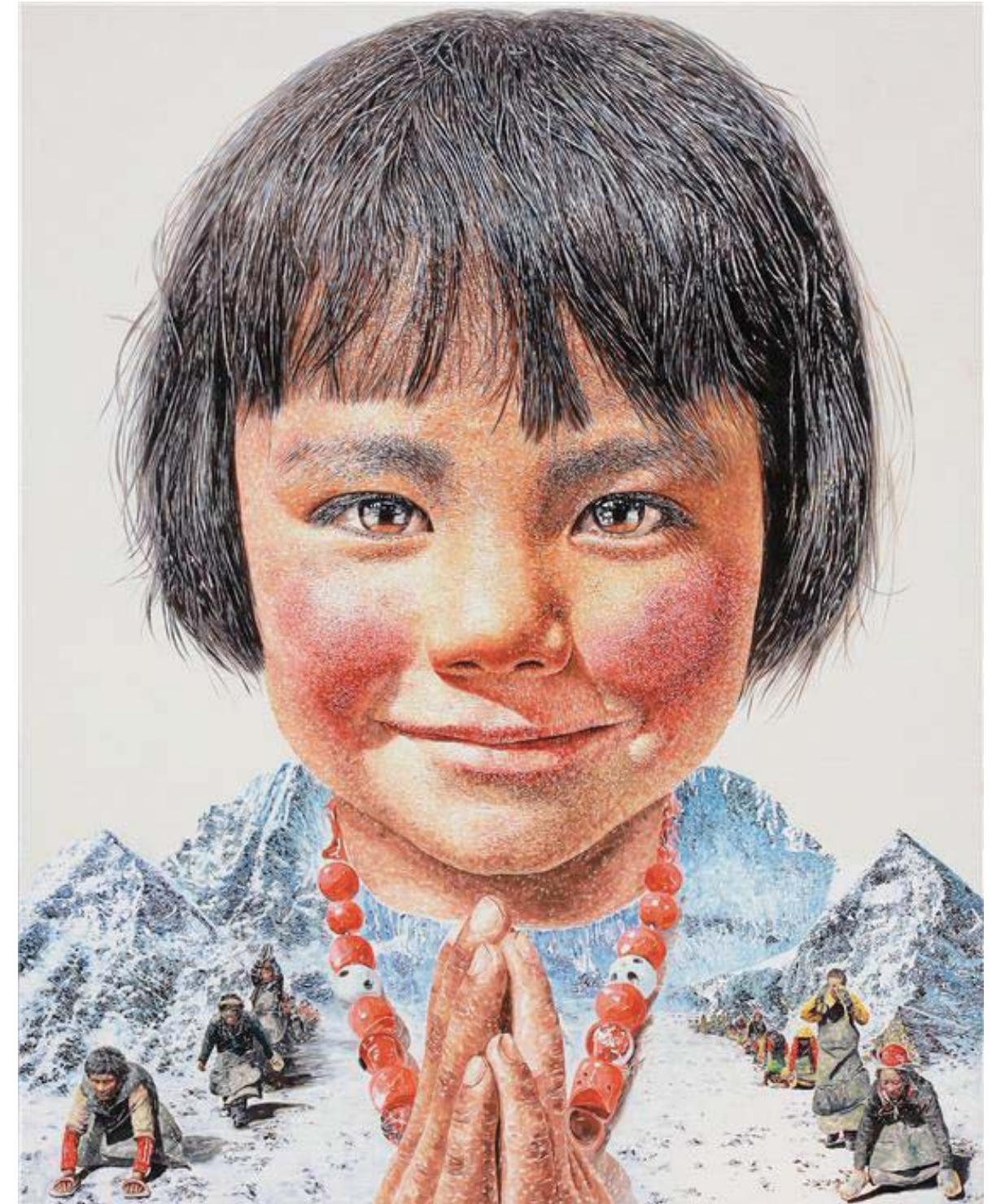
- | | | |
|-----------|--|------------|
| 연대 | 동아시아의 21세기 염화미소 | 임영선 |
| 공존 | 플라스틱! 공생과 공존의 가능성 | 김태연 |
| 평화 | 우리는 하나(빛과 그림자 조각 작품)
점으로 되살아난 역사 속 인물 | 안경진
이동재 |

- | | |
|--------------------|-----------|
| 학생참여 | 동아시아시민 되기 |
| • 내 마음 속 스타 | |
| • 폐 비닐봉지, 꽃으로 피어나다 | |

현대

임영선

임영선은 변방의 아이들을 통해서 지구의 미래를 본다. 그는 몽골이나 캄보디아, 티베트 등과 같은 주변부 지역의 마을을 방문해서 어린이들과 벽화 그리기 등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가지는 한편, 한 없이 맑고 깊은 미소를 지닌 어린이들을 현지의 풍경과 오버랩해서 담아내는 회화작품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주변부 소수자에 주목해서 그곳 어린이들을 담아내는 임영선의 시각은 동시대의 국가, 인종, 인권, 평화 등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한다.



티벳 히말리야 소녀 / 캔버스위에 유화 / 162x130cm, 2011



티벳 히말라야 아이들 / 캔버스위에 유화 / 218x333cm, 2010

공존

김태연

섬유미술을 전공한 김태연 작가에게 플라스틱 비닐봉지는 옷감이자 필수 재료이다. 일상에서 무수히 쓰고 버려지는 무가치함의 상징인 비닐봉지가 마치 누에고치처럼 작가의 손을 거쳐 형형색색의 고운 비닐 실로 변화하고 마침내 작품으로 부활한다. 꽃으로 피어난 비닐봉지는 더 이상 플라스틱 폐기물이 아니라 예쁘고 고급스러운 예술이 된다. 손수 비닐을 잘라내어 실을 잣고 직조하는 작가의 수고는 수명을 다한 벗짚으로 가마니를 짜서 쌀을 담는 수천 년의 전통을 상기시키며, 고단하지만 독립적인 조형환경의 완전무결함으로 빛난다. 진리는 만물에 편재한다는 말이 있듯이, 작가가 짜임을 만들어 보여주는 플라스틱 작품에서도 평범 속의 비범한 조형 언어를 발견할 수 있다.



플라스틱 비닐로 만든 꽃 99조각 / 비닐백, 평직 / 20x20cm, 2012



플라스틱 섬 2016/비닐백 / 비닐백, 평직 / 20x20cm, 2012

명화

안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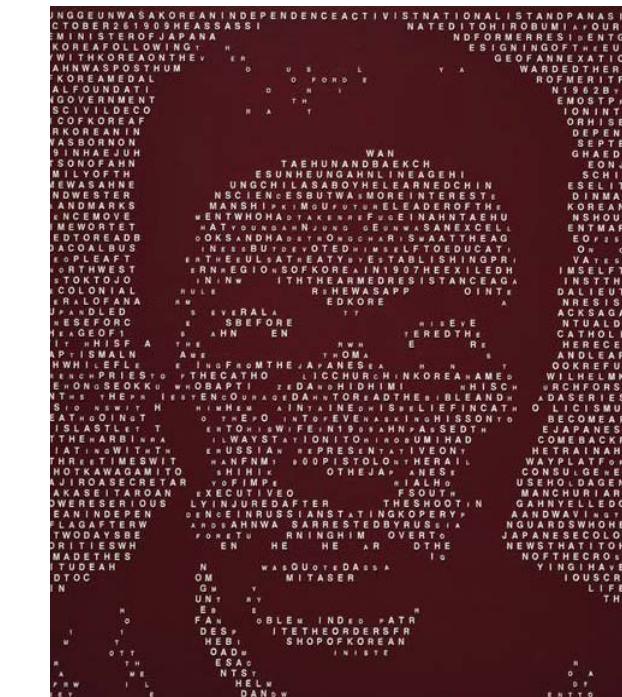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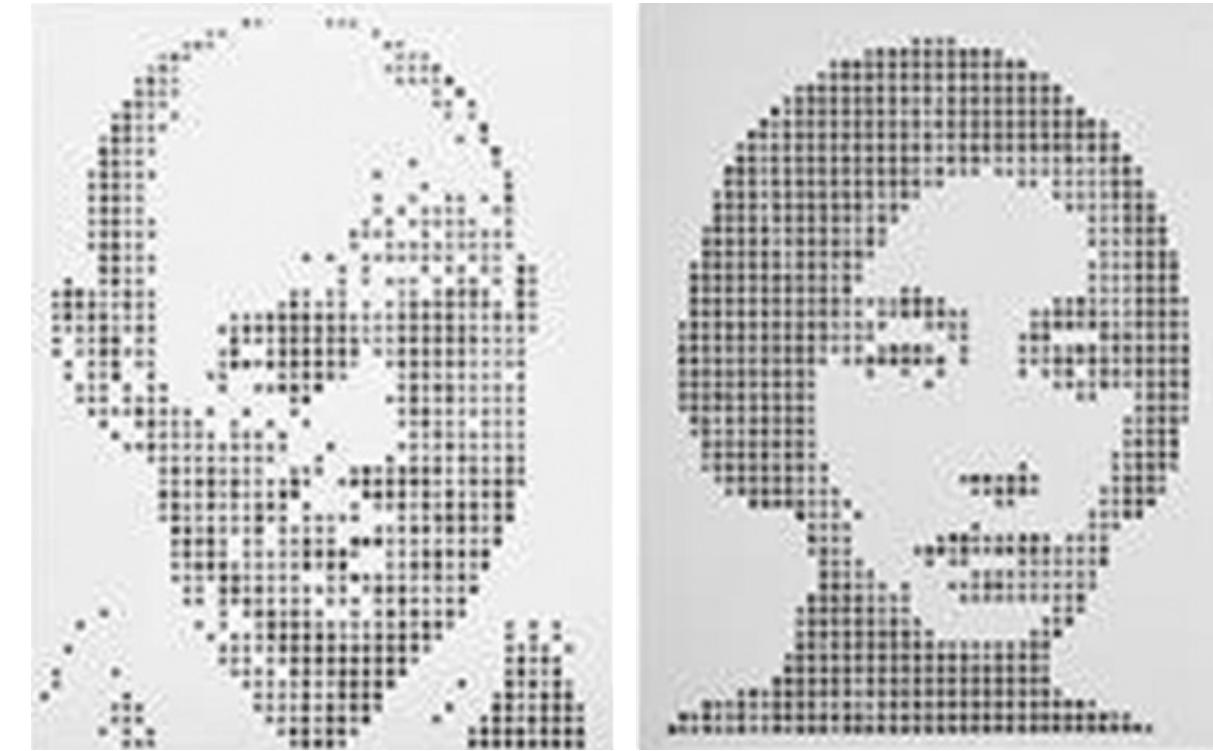
빛과 그림자는 인류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놀이이자 예술의 표현법이다. 조명을 통해 조각에 다른 이미지의 그림자를 만드는 이 오래된 방법으로 작가는 우리가 처한 현재의 현실과 그 숨겨진 이면을 새롭게 보여준다. 작품『하나』는 정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두 사람이 서로를 꼭 껴안고 있다. 토끼도 호랑이도 아닌 사람이 어울려 사는 한반도, 그 그림자 형상이 한반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결과에 보는 이로 하여금 한반도의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



이동재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옛말처럼 작은 입자들을 캔버스에 조직하고 배열하여 태산같이 큰 자취를 남긴 인물상 연작을 제작한 이동재 작가는 인내와 집중의 시간을 집적(集積)한다. 작가 이동재는 쌀, 콩, 녹두 등과 같은 곡식이나 레진으로 제작한 알파벳을 소재로 역사, 정치, 운동선수, 배우 등 유명인의 초상이나 건축 아이콘들을 캔버스에 부착하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쌀로 만든 『김구』 선생님 작품에 대해 “우리 선조들이 한반도에 정착한 후 가장 중요한 작물이 쌀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가진 쌀과 김구 선생이 품은 민족 정체성이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그는 인물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물질을 선택하여 표현함으로써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인물에 대해 해석하게 한다.

명화



- | | |
|---|---|
| 1 | 2 |
| 3 | 4 |
1. 한용운 캔버스위에 아크릴릭, 크리스탈 / 41X32cm, 2018
 2. 정정화 캔버스위에 아크릴릭, 크리스탈 / 41X32cm, 2019
 3. 안중근 캔버스 위에 아크릴릭, 레진 오브제 / 100X100cm, 2014
 4. 김좌진 아크릴 끌감, 캔버스위에 크리스탈 / 100X100cm, 2011



동아시아 시민되기

* 지도교사

- 인천갈산초등학교_ 정은선
- 인천마장초등학교_ 양승분
- 인천부곡초등학교_ 조성경
- 인천신곡남초등학교_ 조윤경
- 구산중학교_ 이호숙



| 이동재 작가 키트 설명서 |

이동재 작가 키트

내 마음 속 스타

우리나라 또는 내가 사는 지역에 평화와 공동체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위인을 찾아 비즈로 표현해 봅시다.

제작과정

- ① 표현하고 싶은 위인 사진 찾기
- ② 한글 문서에 사진 옮기고 편집
- ③ 사진 위에서 왼쪽 마우스 두 번 클릭
- ④ 개체속성에서 '그림' 선택 후 그림효과 '흑백' 선택
- ⑤ 흑백 그림을 만든 후 적절한 음영이 만들어지도록 '밝기' 조정
- ⑥ 스티커 비즈를 붙일 수 있는 이미지 만든 후 출력
- ⑦ 아크릴판 앞쪽 비닐을 떼어내고 뒤에 흑백 그림 붙이기
- ⑧ 검은색 부분에 비즈 붙이기
- ⑨ 의도한대로 비즈 붙여 완성
- ⑩ 뒷면에 색지를 붙여 완성

내 마음 속 스타

'내 마음 속 스타'는 이동재 작가의 인물탐구와 표현방법을 감상하고 학생들이 역사 속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인물을 찾아 그의 업적을 탐구하고 형상화하는 프로젝트이다.

〈참여학생〉

* 인천갈산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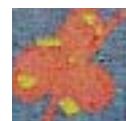
오의찬	정예린	최윤영	장석현	김도희
정전우	김준서	임시아	김하윤	배유진
한태용	김다혜	이재경	김민서	이소린
김민지	최서연	양서현	김현재	배연정
김민서	김서령	김한울	최지우	권시율

* 인천신곡남초등학교

김지우	윤채현	강서연	권형우	최보경
안서현	양루희	김민서	사우석	정효린
허주원	류준호	김윤하	서민준	안예준
최유민	심윤지	서다정	권윤지	정종훈

* 인천부곡초등학교

김정현	김형지	이연서	윤준서	박소이
황서진	이서율	양지유	박민서	김준원
김주하	임수하	김하윤	김예준	최연서
배서윤	권서린	최서아	임서연	신의정



김태연 작가 키트

원형직물짜기

“폐 비닐봉지, 꽃으로 피어나다”

▣ 자세한 작업 과정은 영상을 참고하세요.

▶ 재료와 도구



- 날실: 신축성 높은 실을 제외하고 어떤 실이든 가능
- 씨실: 비닐봉지, 포장 끈, 안 입는 옷 등 재활용 소재
- 직조 틀: 종이접시, 택배상자, 수틀, 액자, 쟁반 등 활용
- 듯바늘: 씨실을 끼워 끌 때, 실 끝 정리할 때 사용

▶ 날실(경사) 걸기



- 시작하는 실을 접시 뒤에 테이프로 붙여 고정하거나, 접시 끝에 가위집을 넣어 실을 끼워 걸어도 된다

▶ 씨실(위사)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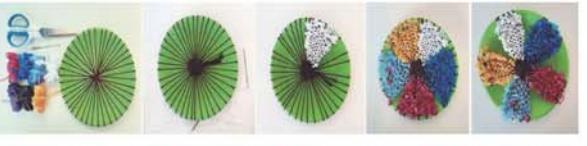
- 비닐봉지 손잡이와 끝 단을 잘라내고 일정한 너비로 자른다.
- 일정한 너비의 실을 만들려면 접어서 칼로 자르는 게 좋고, 가위로 자르면 불규칙한 실을 만들 수 있다.
- 고리를 잘라 한 가닥으로 사용해도 된다.

▶ 원형짜기



- 원형짜기는 날실 수가 훌수여야 계속 이어서 끌 수 있다.
- 3번 사진처럼 한 부분의 날실 두 가닥을 하나로 모아 전체 날실 수를 줄수로 만든다.

▶ 꽃 짜기



- 면을 나눠 끌 때는 날실 수가 훌수든 짹수든 상관없다.
- 4번 사진의 꽃잎을 모아 5번 사진의 꽃잎처럼 변형 할 수 있다.

▶ 택배상자로 원형틀 만들기



- 택배상자, 수틀, 액자, 쟁반 등 생활용품을 틀로 사용할 수 있다.

폐 비닐봉지, 꽃으로 피어나다

우리 주변에 버려지는 폐 비닐과 종이박스 등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참여학생〉

* 구산중학교

권다솔	김가영	김나연	서연우	양혜원
정수빈	정윤서	최우진	홍은채	구진모
권윤우	김세현	문경빈	박종현	양제원
유마빈	이정재	임서진	임성현	진상훈
한채민	김태희	박다인	박채빈	박현진
김다현	김민경	김민채	오은서	이세현
이승현	조수진	김범준	민준기	양준혁
이서현	이준성	임호	정하민	최준혁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Incheon Bukbu Office of Education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21세기 동아시아의 미소』 전을 함께 만든이

발행인 _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이혜경 | **발행처** _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53번길 35)

자문 _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미영 | **총괄** _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이종태

기획 _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현정 | **지원** _ 부평구문화재단

학생지도 _ 인천갈산초등학교 교사 정은선, 인천미장초등학교 교사 양승분, 인천부곡초등학교 교사 조성경

인천산곡남초등학교 교사 조윤경, 구산중학교 교사 이호숙